

마라톤 즐기는 이창래 상지피앤아이 대표

# 술 끊고 달리니 사업도 술술

흔히들 인쇄업을 수주산업이라 한다. 잘 나가는 일부업체에서는 현금 거래가 아니면 인쇄를 못하겠다고 큰 소리를 친다고 하나, 인쇄업을 경영하는 상당수 경영자들에게는 수주 한 건과 연결될 수 있는 소주 한 잔이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상지 P&I 이창래 대표도 그러한 표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인쇄인으로, 선약이 되어 있던 술자리가 취소라도 되면 일부러라도 술자리를 만드는 그런 인쇄인이었다.

하지만 이창래 대표는 지난 1월1일부터 금주를 선언하고 술에 취해있던 저녁 시간을 달리기에 흠뻑 취해 한해를 보내고 있다.

### ●하프마라톤대회 거뜬히 완주

한 술 하기로 소문난 그였기에 금주로 인한 애로사항(?)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단 가까이 지내던 술친구들이 조금씩 멀어졌다는 거죠. 술 끊었다는 소문을 여기 저기서 들은 지인들이 부정기적인 모임에는 잘 부르질 않으니깐... 하! 하! 하!”

지인들에 대한 미안함을 웃음으로 대신하는 그가 가지는 금주의 즐거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시간이 아주 많아 졌어요. 그리고 술 마실때는 술김에 회사를 경영했던 소리는 아닌데 술을 끊으니깐 정신이 맑아져서 사업에 진력을 다할 수도 있어서 좋구요”

이창래 대표 개인에게도 좋은 쪽으로 연결되는 금주의 혜택을 보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회사 직원들이다.

금주를 결심하고 회사 인근의 P호텔 휘트니스 클럽에 등록한 그가 원하는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전액을 부담해 같은 클럽에 등록을 시켜서 운동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창래 대표의 금주 실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선약이 취소되면 일부러 다른 술자리를 만들기에 바빴다는 그가 두 번째 금주의 길로 접어든 데는 '가족 사랑'이라는 전제가 숨겨져 있다.

“2000년도에 딸아이가 고 3이 되었어요. 그래서 혼자 고생하는 게 안스럽기도 해서 내 혼자 결심으로 딸과 함께 한다는 생각에 1년 동안 금주를 선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들 녀석이 고 3이 됐어요. 차별을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번 1년 동안은 금주 결심했습니다”

딸과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 뛰어난 금주인지라 다소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두 번째 맞이하는 금주는 첫 번째 금주와는 사뭇 다르다.

첫 번째 금주가 무작정 술을 참는 금주였다면 두 번째 금주는 첫 번째 금주에서 경험한 무계획성에서 벗어나 달리기와 책이라는 새로운 친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택한 달리의 즐거움은 금주 실천 세 달여 만에 하프 마라톤 완주라는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달리기를 본격 시작한 세 달여 만에 안겨진 하프 코스 완주에는 '뛰어난 운동 신경은 아니지만 지구력으로 푹푹 뭉친 강단 있는 몸'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는 스스로의 평가를 시험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칼바람과 맞서 삼척에서 출발 평택까지 320여 km에 이르는 38번 국도 완주에 나섰다.

도보로 행한 5박 6일 동안의 일정 속에 그는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체의 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맑게는 15시간에서 적게는 12시간 동안



홀로 자신과의 싸움에 응했다.

여기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3월 말부터는 달리기 인생에 합류했다. 초창기 동네 운동장 3~4 바퀴에서 시작한 달리기는 열 바퀴, 스무 바퀴로 늘어났고, 지난 6월 22일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노사화합마라톤 대회에서 하프마라톤에 도전, 완주의 기쁨을 누렸다.

“당시에 하프 마라톤에 성공하기는 했는데 좀 버거웠어요. 10km는 평상시에도 뛰니깐 하프 코스에 도전해도 이상 없겠지 하는 생각에 무작정 뛰었는데 무리가 좀 있더군요. 그래서 다음에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요”

● 풀 코스 도전까지는 금주가 관건(?)

첫 번째 도전한 하프 마라톤은 그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준비해야 한다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전은 지난 9월 28일 문화일보가 주최한 통일마라톤대회.

철저한 준비 끝에 도전한 이번 대회에서 그는 젊은 건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2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무리 없는 완주와 함께 이번 대회는 그와 직원들에게 뜻깊은 대회로 기억될 것이다.

“태풍 매미 때문에 수재의연금을 여러 곳에서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으로나 회사 차원에서 동참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이니깐 따로 낼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전달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신문사에서 우리회사의 수재의연금 전달을 뜻 깊은 자리로 만들어 줬습니다”

문화일보 마라톤은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었다. 애초의 계획은 춘천마라톤 도전이었다.

춘천마라톤이 풀 코스만 있는 관계로 춘천 마라톤 도전의사는 42.195km라는 풀 코스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의 하프 마라톤으로 얻은 자신감이 있고 하니깐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풀 코스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아마도 이번 금주는 좀 오래 갈 듯 싶네요”

신이 훌쩍 넘은 나이에 도전하는 풀 코스 도전. 신나는 그의 달리는 인생만큼이나 그와 상지피엔 아이, 인쇄업도 성장 일변도를 달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용우 기자〉

